

도시 구성체와 도시 커먼즈

대안적 도시 전환을 위한 개념적 고찰*

Urban Formation and Urban Commons:
Conceptual Reflections for an Alternative Urban Transformation

이승원**

이 글은 투기적 도시화가 초래하는 문제와 위기를 투기적 도시화의 내적 조정이 아니라, 도시 프로젝트의 대안적 전환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 도시 전환의 가능성과 대안적 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도시 구성체' 개념을 포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the city as assemblage)'와 '도시 구성체(the urban formation)'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구체화하고, 이 개념적 구체화가 실천 영역으로서의 도시 전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오늘날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를 헤게모니적으로 영도화하고 있는 '투기적 도시화(speculative urbanization)'의 현실적인 의미와 함께, 특정한 도시 구성체가 불안정하게 재현할 때 구성적으로 발생하는 '남유(catachresis)'와 '추방(ban)'이 '투기적 도시화(speculative urbanization)'를 속성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도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간략히 개념

* 본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NRF-2021S1A5C2A03088606). 줄고를 성실히 심사하고 논평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이자 동료 연구자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 분 모두의 소중한 논평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으나, 시간, 지면, 능력의 부족으로 매우 미흡한 점 양해를 구하며, 차후 연구에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학술적인 목적과 함께 시의적인 차원에서 연구자의 관여와 실천을 위한 '투사적 연구(militant research)' 차원에서 이뤄진바, 다소 내용이 거친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현장 연구 및 폭넓은 토론 등을 통해 이론적 정교화 작업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 연구원(ishi@naver.com)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www.kci.go.kr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 글은 쫓겨난 자들이 투기적 도시화에 적대적으로 대항하는 전복과 해방의 주체로 구성·재현할 가능성을 '도시 커먼즈' 운동의 결합을 통해서 찾고자 한다.

주요어: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 도시 커먼즈, 도시 구성체, 헤테로토피아, 투기적 도시화, 남유, 추방

1. 이 글의 목적

이 글은 투기적 도시화가 초래하는 문제와 위기를 투기적 도시화의 내적 조정이 아니라, 도시 프로젝트의 대안적 전환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 도시 전환의 가능성과 대안적 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도시 구성체' 개념을 포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the city as assemblage)'와 '도시 구성체(the urban formation)'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구체화하고, 이 개념적 구체화가 실천 영역으로서의 도시 전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한다. '도시의 정동(affect)'은 이 두 도시적 실체들의 불안정한 접침이 이야기하는 재현-비재현적 흔들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글은 오늘날 아상블로주로서의 도시를 헤게모니적으로 영토화(territorialization)하고 있는 '투기적 도시화(speculative urbanization)'의 현실적인 의미와 함께, 특정한 도시 구성체가 불안정하게 재현할 때 구성적으로 발생하는 남유(catachresis)와 '추방(ban)'이 '투기적 도시화(speculative urbanization)'를 속성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도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간략히 개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추방', '벌거벗은 생명', '호모 사케르(homo sacre)' 개념에 대한 에르네스토 라클라우(Ernesto Laclau)의 비판적 성찰에 기대어, 남유와 추방에 의해 특정한 도시 구성체 질서에서 배제된 자들이란 도시 법 밖에서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굴복된 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 도시화를 정당화하는 '도시 법' 바깥,

즉 도시 구성체가 헤게모니적으로 재현하지 못한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의 비재현적 영역에서 스스로 투기적 도시화에 적대적으로 대항하는 전복과 해방의 주체로 구성·재현할 가능성을 ‘도시 커먼즈’ 운동의 결합을 통해서 찾고자 한다.

추방된 자들의 해방적 주체화는 남유와 추방 이후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특정한 대안 담론이나 도시 프로젝트와 헤게모니적으로 접합될 때 가능한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과정이다. 또한 ‘도시 커먼즈’는 탈-투기적 도시화 이후 제시될 중요한 도시 전환의 방향을 가리키는 중요한 기표가 될 수 있다. 물론 추방된 자들과 대안 담론이 어떻게 접합되고 해방적 주체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도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한다.

2.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와 ‘도시 구성체’

1) 전략적 도시 모델과 그 한계

불평등, 기후위기, 민주주의의 후퇴, 투기적 도시화 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난제와 위기를 도시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포용 도시 (inclusive city)’, ‘스마트 도시’, ‘공평한 도시(equitable city)’, ‘회복력 도시 (resilient city)’, ‘역량강화 도시(enabling city)’, ‘공유 도시’, ‘커먼즈 도시(a city as commons)’ 등 대안적 도시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다(Anttiroiko and de Jong, 2020; Esposito et al., 2021; Shi, 2021; Vale, 2014; Camponeschi, 2010, 2013; 서울특별시, 2020; Foster & Iaione, 2016; 박인권, 2015). 이는 전 지구적 난제와 위기가 전 세계 인구의 약 70%가 모여 사는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기술, 지식, 네트워크, 물리적 자원과 기반 등은 물론, 이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의사결정 권한, 즉 정치권력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

주변부, 농촌, 자연 지역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거나, 대안적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 모델/체제가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이 근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적 이해관계에 갇혀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촌의 공동체적이고 생태적인 생활양식, 전(前)자본주의적 삶 속에서 자연의 생태적 시스템에 스며들어 살아가는 원주민의 생활방식과 인식론은 도시문제, 나아가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새로운 대안적 도시 모델을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도시가 이러한 난제와 위기의 발생지이자 원인 제공의 장소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의 궤도와 도시 간 초국경적 연결 속에서 도시의 팽창은 도시 이외의 지구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도시의 재구성 또는 도시 전환은 전 지구적 위기를 대체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Lefebvre, 2003[1970]; 황진태, 2016; Brenner & Schmid, 2011).

이렇게 제시되는 전략적 도시 프로젝트들은 때로는 경합적이고,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특정 도시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가 지시하는 도시적인 것의 집합을 완벽히 재현할 수도, 고정된 의미 체계로 절대적으로 묶을 수도 없듯이, 그 프로젝트가 드러나는 도시문제를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간단히 말해서, 도시는 그야말로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2)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

도시 연구에서, 아상블라주는, 이 개념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거나 부재하는,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내부에 있거나 외부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사이 관계에 접근하거나 이 관계를

이해 또는 재현하는 중간 용어이자 이 용어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이라 할 수 있다(McFarlane, 2011; Dovey, 2010).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도시 프로젝트는 자본의 축적과 상품화, 특정한 투자와 선호를 위한 불균등한 지역 개발과 불평등한 도시화를 촉발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 도시화는 불평등을 확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McFarlane, 2011: 652). 이상블라주는 이 과정과 교차하거나 일부 겹치기도 하면서,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지만, 반면 이 도시화와 충돌하고, 갈등하기도 한다.

들뢰즈(G. Deleuze)와 가타리(F. Guatarri)가 정교화했듯이, 이상블라주는 ‘연합, 배열, 공생(symbiosis)’ 등을 통해 복합체가 유지, 해체, 재구성되는 현상의 ‘배치(agencement)’ 그 자체이며, 관계적이고 생산적이며, 이종적이고,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와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의 역동성을 갖추고, 욕망을 통해 무쳐지기 때문에 물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Deleuze & Guattari, 1987; Deleuze & Parnet, 2007[1977]; Muller, 2015; 김숙진, 2016).¹⁾ 또한, 이상블라주는 각각의 요소들이 내재적인 원인과 본질에 기반해서 하나의 통일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들이 묶여 있고,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블라주 자체의 본질이나 내적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란 어떤 중심이나 본질적인 핵심에 기반한 내적인 힘에 의해 필연적으로 구성되는 도시가 아니라, 복잡성, 유연성, 마주침, 혼종성, 규범성, 관계성, 다원성, 다층성 그리고 여러 서사의 얽

1) ‘이상블라주’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아장스망(agencement)’의 영어식 표현인 assemblage의 불어식 발음을 표기한 것인데, 도시지리학 차원에서 이상블라주가 이런저런 것들이 얽혀 있는 어떤 복합물의 구성을 의미하는 경향이 크다면, 들뢰즈와 가타리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아장스망은 ‘이상블라주’보다는 ‘배치’ 혹은 ‘배치 장치’로 번역되고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아장스망과 이것의 영어식 표기/불어식 발음인 이상블라주(또는 영어식으로 어셈블리지는)는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비록 두 사람 사이에 들뢰즈의 이상블라주 개념에 대한 일정한 논쟁이 있지만, 마누엘 데란다(Manuel DeLanda)와 토마스 네일(Thomas Nail)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 assemblage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것들의 결합이나 통일, 하나 되어감을 의미하지만, 불어에서 agencement은 배치, 연합의 의미가 강하다(데란다, 2019; Nail, 2017).

힘이며, 이 얽힘 속에서 때로는 수많은 욕망이 충돌하기도 하고 하나의 욕망이 이 얽힘을 지배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는 시간의 축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진동하고, 변해가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 기획, 즉 특정한 도시 프로젝트로 완전히 고정되거나 재현될 수 없다(Nail, 2017; 백일순·김주락·이승원, 2023; 김숙진, 2020; 신진숙, 2021; Muller, 2015, McFarlane, 2011).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에 무엇이 어떻게 얽히는가에 따라 도시는 ‘동네 한 곳에서 영위되는 생활의 성격, 이웃과 낯선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이 품고 있는 감정, 장소에 대한 애착’과 ‘의식’을 의미하는 ‘시테(cité)’의 개방성과 폐쇄성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세넷, 2020: 9), ‘실천과 문명이 창조한 정교한 작품(oeuvre)’이 되며(Lefebvre, 1967: 126; 메리필드, 2015: 84에서 재인용), ‘도시와 농촌 세계의 기묘한 충돌과 융화, 복잡하게 뒤얽힌 층성도의 기묘한 혼합’이자 ‘도시에 갇힌 이들에게는 기묘한 실존적 정신분열증’인 행성적 도시화의 특정한 궤도를 만든다(메리필드, 2015: 100). ‘배치’를 중심으로 이상블라주의 도시의 경우, 예를 들어 학원가, 자동차 중심 도로,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형 복합 상업단지, 부동산 가격 인상 등을 중심으로 도시의 삶이 배치될 경우, 그 도시의 구체적인 이상블라주는 ‘강남화’ 차원에서 인식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강남화라는 영토적 배치로서의 특정한 이상블라주 도시에서 그 도시의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제로 웨이트 카페, 공유 공간, 자전거 전용도로,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지역화폐, 지역 순환 경제/사회적 경제 기반, 사회 주택, 공동체 토지 신탁, 공동체 돌봄 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도시의 삶이 배치될 경우, 강남화라는 영토를 벗어나기 위한 탈영도화로서의 새로운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의 출현이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은 이상블라주로서 도시란 어떤 통일체를 지향하기보다는 배치의 특징에 따라 도시의 형태와 삶의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양체(multiplicite)’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Nail, 2017: 22).

결론적으로, 도시를 이상블라주로 인식한다는 것은 특정한 ‘영토화’로서의 배치를 인식한다는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 어떤 도시도 어떤 중심이나 본질을

확정하지 않은 채 그 자체로 특정한 시공간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현상이며, 다양체라는 시각에서 볼 때 탈영토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 도시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경합하거나 협력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제시되고 물질적으로 구현되려는 여러 대안적 도시 프로젝트들은 각각 이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를 자신의 방식대로 배치하고, 특정한 질서를 부여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의 내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선정하고 의미와 위상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것이 헤게모니적으로 완전하고 안정된 도시 모델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는 특정한 도시 구성체로 재현되고, 기존 이상블라주의 영토를 유지하고, 확장하고, 보편화하면서 여타의 탈영토화 움직임을 억제하려고 한다.

3) 도시 구성체와 정동

포용 도시, 스마트 도시, 공유 도시, 회복력 도시, ‘신도시’ 등 모든 전략적 도시 프로젝트는 각각이 추구하는 도시의 배열과 매트릭스에 따라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의 영토성을 임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고정하고, 다른 탈영토화의 가능성을 억제하면서 헤게모니적으로 도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를 자본축적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구성하면서 시민적 사용 가치보다 자본주의적 교환가치와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고, 도시민의 주거 공간과 영업 공간을 대자본의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의 공간으로 대체하는 ‘투기적 도시화’는 도시적인 것을 투기의 대상으로 재의미화하고, 도시 공간을 자본과 토건 세력, 권위주의 정부의 성장연합에 의해 끊임없이 헤게모니적이면서도 강제로 사유화(privatization)하고, 상품화하는 상징화 과정이며, 이것은 들뢰즈(G. Deleuze)의 이상블라주나 배치를 형성하는 리좀적(rhizomic)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외적 강제력에 의한 억압적 배열 또는 질서 세우기(ordering)라고 할 수 있다(《웹진 공유도시》, 2021; 황진태, 2016; 이승원, 2019).

이렇게 헤게모니적으로 재현된 도시, 즉 특정한 도시 프로젝트의 논리와 의미화에 따라 임의적으로 재가공되고, 탈영토화의 가능성이 차단된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 그리고 이 도시를 유지하려는 헤게모니 실천의 결합을 이 글은 ‘도시 구성체(the urban formation)’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도시 구성체에 대한 이전 연구는 ‘이상블라주’ 개념이 도시의 ‘우연적이고 복잡하며 비고정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효’한 반면, 현대 자본주의 도시에서 도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기획과 구체적 통치 전략이 이상블라주의 자율성과 배열을 제한하고 있어서, 도시 프로젝트가 동원하는 ‘행위자의 의지와 헤게모니적 실천 동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도시 구성체 개념을 이상블라주에 대한 보완으로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백일순·김주락·이승원, 2023: 139). 그러나, 이 글은 초기 개념화를 발전시켜서, ‘이상블라주’와 ‘도시 구성체’라는 두 개념을 상호 보완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도시 구성체를 이상블라주의 탈영토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어떤 본질과 중심으로 이상블라주를 새롭게 재현(representation)하고, 이 재현된 것을 일반적인 사회적 지평 위에서 신화화하고 상식으로 만드는 헤게모니적 차원에서 그 위상을 놓고자 한다. 즉, 도시 구성체는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에 대한 헤게모니적 개입의 결과이며, 이상블라주는 도시 구성체를 통해 불완전하고 왜곡되게 재현 또는 재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특정한 재현 형태로 나타나 있는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를 특정한 도시 구성체의 논리와 상징·의미화 체계로 헤게모니적으로 다시 재현한다는 것은 생성하고 소멸하는 수많은 이질적인 것들이 리즘적 움직임을 통해서 다층적이고 탈중심적이면서, 내부와 외부/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비결정적이고 우연적으로 넘나드는 가운데 얽힌 이상블라주를 ① 특정한 의미를 중심으로 배열·접합(articulation)하여 어떤 총체화된 통일체로 구축하고, ② 이 의미화 과정을 통해서 고정되고 실정적인 동일성과 장소를 부여 혹은 제거하면서, 이질적인 것들을 앞선 통일체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배치하고, ③ 어떤 궁극적 완전함도 추구하지 않는 생성과 소멸의 흐름과 다양체의 발현을 특정한 과정에 속한 정해진 단계 속에서 고정된 주체 위치로서 아무런 변화 없이 끊임없이 반

복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와 이것을 헤게모니적으로 재현·구성한 도시 구성체 사이에는 특정한 도시 구성체를 통해 헤게모니적으로 재현되지 못한 혹은 통일체의 요소로 재배치되지 못한 잔여들이 들뢰즈가 비재현적 사고라고 표현한 정동적 차원으로서, 이 도시 구성체가 완전히 폐쇄된 실정적 질서가 아닌 불안전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지점이다. 나이절 스리프트(Nigel Thrift)는 이러한 상황을 분노, 공포, 환희, 비애, 혐오와 같은 것들로 에워싸인 채 “도시들은 정동(affect)의 소용돌이처럼 보인다”고 표현하고 있다(Thrift, 2004: 57). 정동적 도시론(affective urbanism)을 통해 실정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벗어나서 도시적 삶을 재구성하는 정동에 주목하는 정동적 도시주의(affective urbanism)가 제시되기도 한다(Anderson & Holden, 2008; 신진숙, 2019: 182). 이것은 ‘강남화’ 현상이 이상블라주를 넘어서 도시 구성체로 헤게모니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유실되거나 배제되거나 너무도 불편하게 재해석되는 도시적인 것들이 재현의 언어와 기호를 상실 또는 왜곡당한 채 어떤 부정적 정동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을 헤게모니적으로 재현한 도시 구성체를 분석해야 하지만, 도시 구성체 자체가 가지는 불안전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도시 구성체는 비재현적 사고로서의 정동적 요소들과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즉 재현되지 못한 것과 재현된 것 사이의 뒤틀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특정한 이상블라주의 영토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정시키려는 것에 맞선 탈영토화 과정, 즉 도시 구성체의 변화(수정, 해체, 재구성)의 가능성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뒤틀림은 기본적으로 우울하거나 풍자적이다. 도시 구성체에서는 다양한 욕망이 교차하기보다는 하나의 욕망이 판타지로서 지배적이며, 다른 욕망을 억누르는, 즉 재현하려 하지 않고 억압적이기 때문이며, 비재현 영역으로 버려진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의 조각들은 지배적인 도시 구성체 차원에서 볼 때 소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뒤틀림을 보여주는 사례는 제주 강정마을을 구럼비 해안을 파괴하고 그 위에 세워진,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가림막이 해체된

후 나타난 제주 해군기지, 신도시의 시그니처 건축물이나 랜드마크로 등장한 거대한 복합단지, 신진숙의 연구에서 그려진 조선 산업도시의 번영과 쇠락의 상징인 (결국 해체되어 버린) ‘폴리아스 크레인’(신진숙, 2019: 190), 아무런 개발 계획이 없는데도 펜스가 쳐진 마포구 공덕동 ‘경의선 공유지’, 2023년 12월부터 폐장되는 서울혁신파크에서 찾을 수 있다. 각종 참사 희생자를 위한 ‘비합법적’ 추모 공간, 구도심의 오래된 좁은 골목길, 사용 승인이 필요한 광장, 도시민 일상의 동선을 규정하는 신도시 8차선 또는 10차선 도로, ‘대중 교통’이지만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버스와 지하철의 풍경도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재현하면서도 재현되지 못한, 혹은 재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둘러싸고 있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우울하다. 하지만, 이 우울함은 도시 구성체가 재현하는 것을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풍자화해 버린다.

4) 남유, 추방, 탈구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와 도시 구성체 사이, 헤게모니적 재현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 사이 뒤틀림을 인정한다면,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가 도시 구성체로 헤게모니화되어 가는 과정은 남유(*catachresis*)와 추방(*ban*)이라는 두 가지 논리와 실천을 구성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다.

- ① 남유: ‘카타크레시스(*catachresis*)’라고도 부르는 ‘남유’는 ‘남용된 은유(*abused metaphor*)’를 가리키는데, 피에르 폰타니에(*Pierre Fontanier*)에 따르면, ‘처음 관념에 부여된 기호를 새로운 관념에 부여하는 것’이며, ‘새로운 관념에 상응하는 아무런 기호도 없거나, 그 특정한 언어에 더 이상 기호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Fontanier, 1968: 213; Laclau, 2014: 88*에서 재인용).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특정 기호의 외연을 “확장하며”, 결국 기존 기호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의미를 최초로 부여하는 남유는 ‘빼앗은 타인의 거주지를 자기 집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Derrida, 1985; 오민*

용, 2022: 90; 윤일환, 2007: 79). 책상 다리, 비행기의 날개, 건물의 양 날개와 같은 것이 잘 알려진 남유의 사례이다. 다리나 날개는 사람 또는 동물과 같은 신체 일부에 대한 지시어이다. 따라서 책상 다리, 비행기나 건물의 날개는 다리와 날개라는 어휘를 오용한 것이다. 하지만 다리나 날개 이외에 책상, 비행기, 건물의 일부를 부를 다른 지시어가 없다. 이것은 다른 지시어를 오용한 것이면서도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는다. 즉 남유에는 비유적인 의미와 문자 그대로의 원초적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유는 그 기원이 되는 단어와 처음 관념에서도 작용한다는 것이다. 자크 데리다(Jaque Derrida)의 '상호 침투'나 '대체 보충'과 유사하게, 폴 디 만(Paul de Man)과 라클라우(E. Laclau)는 각각 이 점에 주목하는데, 처음부터 특정한 신체 부위를 '다리'나 '날개'로 불러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폴 디 만(Paul de Man)은 모든 단어에는 남유가 따른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라클라우는 인접성, 환유, 은유의 관계를 통해 헤게모니를 설명하면서, 남유는 마치 인종차별주의적 폭력이 존재하는 지역이 있고, 이 지역에서 인종차별에 맞설 유일한 힘이 노동조합일 때, 비록 노동조합의 본질적 과업이 인종차별 반대는 아니지만, 여기에 참여할 때 노동조합이 인정받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면 마치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인접성, 환유, 은유의 과정, 즉 헤게모니적 실천 논리에는 남유가 수반된다고 설명한다(Laclau, 2014: 73, 105). 라클라우는 언어-수사적 차원의 남유를 물질적-수행적 차원으로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유를 도시 차원에 적용한다면, 어떤 도시 공간에 가시적으로 웅장한 또는 최첨단 건축물과 인프라(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공기관 건물, 주상 복합물, 초고속 인터넷망, 와이파이 시스템, 자율주행 장치 또는 다양한 공유 공간과 공공 디지털 플랫폼 등)를 구축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를 '스마트 도시', '공유 도시', '혁신 도시', '신도시' 등으로 재규정하고, 도시적인 것들을 특정한 중심에 따로 배치하는 것과 유사하다. 도시에 대한 남

유에서, 재래시장, 차가 다닐 수 없는 마을 골목, 투기성보다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건축 공간 등도 ‘저개발’, ‘낙후’, ‘위험’ 등의 의미가 폭력적으로 침투하는 또 다른 남유가 작동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유가 수사학적으로 말을 오용할 때, 또 다른 말의 오용이 뒤따르며, 마찬가지로 물질적 차원에서, ‘왜곡으로서의 남유’를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유는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에 대한 도시 구성체의 헤게모니적 재현과 재배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남유는 모든 재현 대상이 재현될 때 발생하는 재현의 일부이며, 남유 없는 재현은 없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유는 특정 도시 프로젝트라는 제한된 것만을 도시의 전체 질서로 인식하려 할 때, 그 이전의 맥락과 아무 상관없이, 어떤 기원과 관련되지 않은 채 언제나 새롭게 발생한다. 도시 프로젝트로서 ‘포용 도시’, ‘회복력 도시’, ‘스마트 도시’, ‘신도시’와 같은 이름이 특정 도시 공간을 재현하지만, 이것은 ‘신(God)’이나 숫자 ‘0(zero)’ 또는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처럼 이름 붙일 수 없는 것들을 지칭하는 이름이 될 때,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환유 방식으로서의 오용이 되며, 이름이 가진 문자 그대로의 의미(literaty) 너머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 상징하게 되고, 나아가 새로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획득하기도 한다(Laclau, 2014: 105). 이것은 특정한 도시 프로젝트가 도시 구성체라는 헤게모니의 위치를 얻게 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서울의 ‘강남’, 또는 강남을 상징하는 것들(예를 들어 ‘학군’, ‘학원가’, ‘로테오 거리’ 등)이 다른 도시에서도 반복되는 것은 단지 반복이 아니라, 그 지역의 기존 도시 맥락과 의미를 새롭게 대치하고, 그 도시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도시 차원의 남유라 할 수 있다.

- ② 추방: 여기서 추방(to ban)이란 도시 구성체의 헤게모니적 재현 과정에서 남유에 의해 부정당하거나 빼앗긴 의미와 지시 대상들이 재현 질서 밖으로, 즉 도시 프로젝트의 담론적 영토 밖으로 ‘추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에 따르면, 추방은 도시 안에서 도시의 경

계를 설정하고, 도시 바깥까지도 '예외 상태'로서 도시 법에 귀속되도록 하는 주권적 행위이다(아감벤, 2008: 341). 추방은 추방된 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도시 프로젝트가 헤게모니적으로 도시 구성체로 구축되는 과정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역설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추방은 남유에 의해 기존 의미와 동일성이 제거되고, 그 자리에 선행 맥락과 무관하게 강제적이고 임의적으로 배치된 새로운 의미와 동일성을 정당화하고, 정상성(normality)의 위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추방은 재현되지 못한 것을 재현 공간에서 제거해서 재현된 것이 재현되지 못한 것에 의해 방해받아 재현 질서가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추방은 남유를 '원래부터 있었던', 마치 어떤 시원적인 것을 그 자리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것으로 유지하려는 헤게모니 구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남유와 추방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한 도시 프로젝트가 도시 구성체로 헤게모니적으로 구축된다는 것은 이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특권적 이익을 얻고, 이러한 이익 산출 방식이 그 프로젝트가 적용되는 도시 영토 안에서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이 되도록, 이 남유와 추방을 법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는 세력들의 연합이 그 도시 구성체의 영토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특정한 도시 프로젝트가 가진 도시 구성체의 위상이 위기에 처하거나, 실패했다는 것, 예를 들어, 에너지 고갈, 식민지 초과 이윤의 부재, 인구 폭발이나 인구 소멸, 도시 간 불평등, 롬펜 프롤레타리아트의 증가와 슬럼화, 전통적 산업 구조 재생산의 위기, 투기적 도시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범죄 증가, 환경오염, 재난과 재해의 반복, 전쟁 등은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를 '남유'와 '추방'이라는 임의적인 방식을 통해 재현한 그 도시 프로젝트가 더 이상 도시 공간을 지배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존 헤게모니적 실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즉 당면한 위기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수 없거나 그런 믿음이 도시에서 사라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탈

구'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 ③ 탈구: 탈구(dislocation)란 기존 질서, 제도, 신념 체계로는 해결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의 발생으로 그 질서, 제도, 신념 체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탈구적 계기의 발생은 기존 사회 또는 도시 질서에 대한 부정과 재구성의 가능성을 제공한다(Laclau, 1990). 따라서 탈구는 이중 운동의 메커니즘을 촉발한다. 이중 운동의 한 축에는 '구성(constitution)', 반대 축에는 '전복(subversion)'이 작동한다. 탈구적 계기가 발생하면 한편으로 기존 질서와 제도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 그 질서와 제도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²⁾

탈구적 사건의 출현을 통해 드러난 기존 질서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시도들, 그리고 그 시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적 주체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라클라우는 탈구가 단지 어떤 안정성을 흔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가 가능한 '자유, 일시성, 그리고 가능성(freedom, temporality, and possibility)'의 순간임을 강조한다(Laclau, 1990, 41~45). 여기에는 구성이나 전복이라는 정치적 시도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시도도 쉽게 제시하기 어려운 상태 또한 가능하다. 즉 탈구적 계기는 '일시적이며 정태적 균형상태(a temporal static equilibrium)'로 귀결되는 경향을 가지기도 한다. 그람시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만일 탈구적 계기가 전통적인 지배계급과 다양한 대중 집단 어느 쪽에서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계기는 일시적이며 정태적 균형상태의 출현으로 이어진다. 정태적 균형상태란 경험하는 사건들이 '절망적이며, 진보세력은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결국 보수든 진보든 그 어떤 집단도 승

2) 탈구의 의미, 그리고 구성과 전복을 민주주의 차원에서 설명한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이승원, 2008. 「민주주의와 헤게모니: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비교민주주의 연구》, 제4권 1호, 67~108쪽.

리를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보수세력은 지배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Gramsci, 1971: 210~211).

도시 차원에서 보면, 탈구적 사건의 출현은 도시 구성체가 탈구축되고 재구성되는 계기이며,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가 리즘적 특징과 탈영토화의 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유와 추방이 특정한 도시 구성체를 위하여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에 중심을 부여하고, 영토적 경계를 절대적으로 구축하려는 헤게모니적 실천이라면, 탈구는 그 실천이 무너진 상태, 즉 남유와 추방에 의해 재현적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들이 재현 과정에 결합될 수 있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순간이며 동시에, 재현적인 것과 비재현적인 것의 뒤틀림이 결국 파열에 다다라 비재현적 사고로서의 정동이 기성 헤게모니적 힘을 넘어서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투기적 도시화', '강남화', '신도시'와 같은 도시 구성체가 다른 도시 구성체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남유, 추방, 탈구를 도시 구성체의 구성, 탈구축, 재구성과 연결할 때, 몇 가지 비판적인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

- ① 도시 구성체에서 구성적으로 작동하는 남유와 추방이라는 방식이 도시 구성체를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도시 구성체의 불완전성, 한계, 때로는 폭력성을 드러내면서, 탈구적 계기가 출현하는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면, 그 도시 프로젝트·도시 구성체는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다른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도시 프로젝트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는가? 즉 헤게모니적 영토성의 힘으로부터 벗어난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는 어떻게 도시민의 욕망과 어울어져 또 다른 이상블라주로 탈영토화·재영토화할 수 있는가?
- ② 현실적으로, 저개발, 슬럼화, 안전 문제, 주거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도시 재개발, 국공유지와 도시 기반 시설의 사영화와 관련된 사례들을 보면, 아

주 구체적이면서 명확한 ‘납유’와 ‘추방’이 강제되고 있으며(경의선 공유지 운동을 집값 떨어뜨리는 무단·불법 활동으로, 서울혁신파크를 저개발 비효율적 공간 활용으로, 원자력 발전을 청정에너지 생산으로 부르는 것처럼), 많은 공적 영역이 종획(enclosure), 폐쇄, 금지되고, 또 많은 정체성과 집단이 불법화되거나 방치되고 있음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체적인 아상블라주의 영토를 벗어나지 못한 채 기존 도시 구성체를 탈구축, 재구성, 탈영토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그렇다면, 일산, 분당, 평촌, 송도, 광교, 판교, 김포, 운정 등 1, 2기 신도시와 세종, 나주, 진주, 원주, 대구 등에서 주거 문제 해결과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해 추진된 혁신 도시 프로젝트가 오히려 지역 불균등 발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가계 부채 증가, 폐쇄형 주거 단지 문화에서 발생하는 배제와 혐오가 신도시와 혁신 도시 프로젝트의 한계를 드러내는 듯하지만, 오히려 여전히 투기적 도시화와 ‘강남 따라 하기’(박배균 외, 2017)가 사회적으로 식지 않고, 집값 상승은 물론 좋은 학교와 사교육을 둘러싼 욕망과 열정(백일순 외, 2023)이 탈구적 계기를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탈영토화의 힘을 억제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고, 도시 구성체는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을까?

투기적 도시화, 그리고 이 투기적 도시화가 펼치는 독특한 납유와 추방의 의미를 검토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3. 투기적 도시화에 대하여

1) 불안이라는 정동

투기적 도시화란 도시민의 실질적 필요와 요구보다 투기적 이윤 추구를 위

해 도시를 개발하고, 주택, 상업, 물류·유통, 교통, 정보통신, 물, 에너지, 문화 시설, 교육, 보건의료와 위생, 돌봄, 산업 시설 등 주요 도시 인프라를 투기 대상으로 상품화하는 비계획적 도시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투기적 도시화는 그 자체가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가치와 아무런 관계없는 비인간적인 지대추구 방식의 이윤 추구 행위이며, 공공성을 부정하고 공공서비스와 공공재를 사영화, 종획하면서 인간의 공동체적 삶과 존엄성을 위한 공통 자원을 훼손한다. 이는 인류와 지구 자체를 약탈, 파괴하는 카니발 자본주의 형태를 보인다(프레이저, 2023).

또한 투기적 도시화는 행성적 도시화의 궤도 위에서 그 영토를 넓혀가면서 도시 밖 모든 장소까지도 자본의 투기 대상으로 왜곡하고 있다(메리필드, 2015; 황진태, 2016; 이승원, 2019). 투기적 도시화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헤게모니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전쟁은 군산복합체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관계 속에서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 그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바꾸는 가장 악질적인 투기적 도시화 행위라 할 수 있다.

투기적 도시화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투기적 도시화가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를 헤게모니적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납유'와 '추방'이 매우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폭력과 고통을 높이고,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투기적 도시화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를 상품화하면서 도시의 생산과 소비 과정이 사회적 관계와 가치의 확산이 아니라, 투기적 목적을 위해 촉진되고 있으며, 공공성이 지시하는 의미가 모든 시민의 생명, 자유, 존엄성의 보호가 아니라, 점차 관료제와 과두제의 강화로 바뀌고 있다. 다른 한편, 투기적 도시화는 개발을 위해 특정한 장소에 머무는 사람을 내쫓을 뿐 아니라, 이 투기적 도시화를 정당화하고 그 권한과 헤게모니를 확장하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찌꺼기·잔여물처럼 이 도시화의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도시의 상품성과 투기성을 떨어뜨리는 사

회연대경제에 기반한 공동체 토지 신탁, 사회주택 운동,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산, 상가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강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및 재공영화 추진, 세월호 광장·기역관, 쿼어 축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공덕역 부근 경의선 공유지 등은 이 투기적 도시화의 영토 안에서 공존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왜 이런 폭력적인 남용과 추방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가? 이것을 행하는 자들의 심성은 도덕적으로 악하고, 그 악함은 그저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인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악하거나, 누구든 이윤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악해지는가? 지나치다는 것은 얼마큼인가? 만일 이렇게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된다. 즉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제거하거나 그 행위를 억누르는 것 말고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그 이유는 폭력적인 오용과 추방을 행하는 자들이 효율성과 경쟁 논리 속에서 연대와 현대의 힘과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사회를 공생공락의 세계로 바꾸기 위한 공통 기반, 공통 자산, 수평적 협력, 연대 보증 등 자유롭고 공동체주의적인 상상과 신뢰를 갖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저 폭력적인 오용과 추방 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선택지가 더 적어질수록, 자신들의 몫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점점 더 커지면서,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현상들의 의미를 바꾸고, 자신들에게 도전하려는 자들을 더욱더 철저히 추방하려는 것일 수 있다

2023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의 마지막 장면은 대지진 후 단 하나 남아 있는 아파트를 타인을 폭력적으로 제거하면서 독차지하는 것만을 생존의 유일한 선택지라 생각한 주민들과 이미 모든 것이 붕괴된 현장에서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타인과의 공존’을 택한 주민들이 어떤 다른 삶을 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투기적 도시화라는 남용이 의미화·재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선택지로서 그 의미를 재구성하지 못할 경우, 결국 투기적 도시화의 남용과 추방에 의해 제거될지 모른다는 불안이라는 정동은 여전히 그 도시 구성체와 거주민의 신체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³⁾

2) '신관료적 권위주의'라는 종력

이러한 현상은 '신관료적 권위주의' 개념을 통해 좀 더 분명히 설명될 수 있다. 신관료적 권위주의(neo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란 정치 엘리트-행정 관료-대기업-유기적 지식의 공생적 협력관계가 특정 산업기반 중심의 경제적 이익 추구로 이어지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이 이익 추구와 연결되는 정치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서, 특히 한국 정치의 새로운 과두제화를 의미한다.

우선, 신관료적 권위주의 개념이 의지한 개념인 '관료적 권위주의'는 정치학자 기예르모 오도넬(Guillermo O'Donnell)이 경제발전이 민주화를 촉발하는 '근대화론'과 달리, 경제발전이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의 출현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다(O'Donnell, 1973; 1978). 오늘날 한국 정치의 과두제화가 신관료적 권위주의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오도넬이 관료적 권위주의의 특징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이 한국 정치권력 집단에서도 대체로 겹치면서도(새로운 산업화의 성공과 그에 따른 분배적 갈등, 노동·시민사회 운동에 대한 탄압, 정치적 허무주의의 확산, 외교 및 경제 차원에서의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가운데 민족주의에 대한 상대적으로 거리두기 등), 군부가 아닌 민간 엘리트 집단이 관료 및 기업과 3자 동맹을 형성하고 있고, 집권 여부와 정치 공학적 갈등을 떠나 보수 양당 구조 속에서 공통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공유하며, 무엇보다 개인 간 경쟁, 성과, 능력주의 등 신자유주의적 자기 계발과 소비문화에 기초한 문화윤리적 자기 통치 방식을 펼치는 변형된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O'Donnell, 1973; 1978).

-
- 3) 송도, 진주, 광교, 일산, 노원 등 신도시 거주민들의 주거 이동과 주거 경험에 대한 심한별과 백일순의 연구는 거주민의 불안과 투기적 욕망의 정동을 잘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심한별, 2023, 「신도시 거주자들의 주거 이동과 주거 경험: 한국의 지배적 도시주의와 그 균열에 대하여」; 백일순, 2023, 「주거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일산과 광교 신도시 거주민들의 비교」, 이하 2023 한국공간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특히 신관료적 권위주의는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더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적 영역의 다양성과 차이 범위, 그리고 정치적 경쟁자의 수를 최소화하면서 정치권력의 재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정치의 사유화’를 추구한다. 이것은 공통 자산이라는 의미에서의 ‘res publica(republic)’이나 ‘commonwealth’와 반대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이나 국공유지에 대한 민간 매각처럼 국가 자체의 사유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국가의 사유화는 국가를 지배권력 집단 자신의 ‘재산(property)’으로 삼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자신들의 ‘속성(property)’, 즉 신체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의 사유화는 국가의 신체화로 이어진다. 여기서 국가의 신체화란 국가가 어떤 유기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이기보다는 마치 유럽 절대군주 시대에 군주가 ‘육화(incarnation)’ 차원에서 자신의 몸과 국가를 일치시켰던 것처럼, 정치권력 집단, 즉 신관료적 권위주의 세력이 국가를 자신들의 신체/자산/속성과 일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의 신체화는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⁴⁾

결국 신관료적 권위주의는 정치의 사유화를 통해 공통 세계에서 정치를 사라지게 하고, 이로 인해, 아무런 중재 없이 사회적 삶이 야만화되는 ‘공통 세계의 야만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공통 세계를 기반으로 자기 신체

4) 노동운동에 대한 기업의 부당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주익과 광재규, 2012년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의 자살로 이어지듯 심리적 공포와 압박을 동반한 잔인한 노동운동 탄압 방식이다.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의 경우는, 기업과 정부, 즉 사측과 경찰이 쌍용차 노조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게 사측에 33억 원, 경찰에 13억 원, 총 46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경우였다.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국가가 노동운동과 시민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방식 중 하나로서 정부와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실태와 규모, 그리고 파급 효과로서 소송 대상자의 삶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신자유주의 처벌국가(the neoliberal punitive state)’ 차원에서 분석하는 김정희원이 현재 진행하는 연구는 국가 통치와 사회운동 전략 분석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우면서,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김정희원, 2023, 「The rise of a neoliberal punitive state: a case of South Korea, 2008-present」, 현대정치철학연구회 공방 초대석 발표자료, 2023.10.18.).

를 보호하고, 공동체적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안전한 보호와 중재 장치를 잃게 되면서, '만인 대 만인' 투쟁이라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적나라하게 방치되고, 점점 반지성주의, 혐오, 차별, 폭력 등 불안하고 위협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관료적 권위주의는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가 형성되는 리즘적 움직임의 과정에 중력으로 작용하면서, 이질적인 것들이 배치되는 방향을 선제적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를 특정한 도시 구성체로 확정할 때, 투기적 도시화가 그 중심과 본질이 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의 사유화, 국가의 신체화, 공통 세계의 야만화라는 신관료적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투기적 도시화가 초래하는 폭력적인 남유와 추방은 다른 어떤 경쟁적 가치나 목적을 부정할 채 다른 선택지에 대한 고려 없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해방의 주체화와 헤테로토피아의 확장

1) 해방의 주체화

도시 구성체는 남유와 추방을 통해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 도시 구성체의 불안전성, 한계, 때로는 폭력성을 드러내면서, 탈구적 계기가 출현하게 될 경우, 그 폭력성을 제거해 나가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도시 프로젝트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각종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켜온 존재 가치와 의미를 빼앗기고, 재개발의 영토와 새로운 생활양식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도시 구성체를 새롭게 구성할 아무런 힘도, 아무런 보호받을 권리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굴복되어 버린 것일까? 만일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저개발'과 '소유권 없음'을 이유로 배제되고, 국유 재산법, 법적인 재산권, 소유권을 근거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가거나, 공공 공간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이것은 이들이 그저 코마 상태에 있는 신체, 또는 굴욕감이

나 공포조차 느끼지 못하는 절대적 무기력 상태에 빠진 ‘무젤만(der Musselmann)’과 같은 순수한 ‘조에(zoe)’로 전락한 것인가? 이 법의 영역 ‘내부’에서 보면, 그럴 수 있고, 이 법이 정당화하는 도시 구성체의 남유와 추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의 ‘외부’ 세계에서는 다르다. 언제나 방치되고 가려진 존재로 머물러 있어야 했던 도시의 룬펜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프란츠 파농(Franz Fanon)의 글을 먼저 살펴보자.

룬펜 프롤레타리아는 일단 생겨나면 모든 힘을 다해 도시의 ‘안정(security)’을 해치려 하며, 근절할 수 없는 타락의 징표이자 식민지 지배의 심장부에 늘 상존하는 부패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포주, 깡패, 실업자, 경범죄자들은 등을 떠밀려 마치 용감한 노동자처럼 해방투쟁에 동참한다.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그 계층은행이들은 불굴의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도 국민임을 자각하게 된다. … 창녀들, 2파운드의 월급을 받는 하녀들, 자살과 광기 사이에서 맴도는 가망 없는 쓰레기 인생들이 균형을 되찾고 앞으로 전진하며, 깨어난 국민의 위대한 행진에 자랑스럽게 참여한다(파농, 2010: 138~139, Laclau, 2014에서 재인용).

파농이 묘사한 룬펜 프롤레타리아트는 도시의 법과 규범성으로는 자신의 주체 위치를 확정할 수 없는 도시 법 밖에 방치되어 있는 행위자들이다. 즉 도시에서 떠도는 이들의 존재 자체는 도시의 한계를 드러내는 탈구적 실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 법 밖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을 ‘깨어난 국민’으로 스스로 형성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 4월 혁명 당시, 때로는 혁명 대오의 최선두에서 진압 경찰에 맞섰던 무명의 룬펜 프롤레타리아트(이승원, 2009), 1980년 5월 계엄군의 잔인한 살인과 폭력의 만행에 맞서 스스로 시민군을 조직하고, 광주를 해방의 절대 공동체로 만들었던 전라남도 광주 시민들(최정운, 1999), ‘돈이 돈을 벌고,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의 질서에 반대하며 자본을 위한 저축을 거부’하고, ‘돈이 은행과 투자를 통해 금융자본이 되어 행하는 착취와 폭력을 막고’, 출자 활동으로 공동체가 지속되고 확산

되며 공동체원들이 상호부조하고 공유지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 은행 빙고 조합원들(공동체 은행 빙고 웹사이트, <https://bingobank.org/>), ‘인권침해와 차별로 억눌려’ 살아왔으나, 교통약자 이동권 법안 개정을 요구하며 2021년 12월 3일 이래 2023년 7월 말까지 총 47차례 자하철 출근 투쟁과 400회에 이르는 선전전을 수행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정창조, 2023) 등 추방당하고 억압당하지만, 오히려 추방당한 곳에서 자신들의 주체성을 구축하고, 추방한 법과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모습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열거한 사례의 주체들(롬펜 프롤레타리아트, 계엄령에 의해 통제되는 시민들, 금융자본과 기성 은행에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했던 고객들, 교통약자로서의 장애인)은 그들이 속해 있는 그 도시의 법, 즉 한계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지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것을 넘어야 해서, 이들은 탈구적 실체이자 동시에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되기도 한다.

2) 저항·대항·대안 헤테로토피아

추방된 자들은 때때로 추방된 공간과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공간을 저항 헤테로토피아로 구성한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기성 도시 구성체를 대체할 새로운 도시 구성체의 형성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운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를 위한 탈영토화·재영토화의 계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예시적 정치(prefigurative politics)’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우선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헤테로토피아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철저히 현실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장소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나 환경과 관련해서 위기 상태에 처한 개인을 위해 마련된 특권적이거나 신성하거나 금지된 장소”(분만실, 기숙학교, 군대 등)로서의 ‘위기 헤테로토피아’이든, 현재의 평균이나 표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개인의 거주 장소(휴양지, 정신병원, 감옥, 묘지, 양로원 등)로서의 ‘일탈 헤테로토피아’이든 이것들은 모두 도시 구성체 내부의 시각과 남유에 의해 설정된 공간일 뿐이다(Foucault, 1997:

332~333).

이와 달리,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는 헤테로토피아를 기존 자본주의 도시 공간에 이질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가능하게 하고 이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현재의 공간 질서는 물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공간이자 힘으로 본다(Stavrvides, 2016: 67~69; Harvey, 2012: xvii).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사적 소유권을 합리화하는 자본주의 국가 질서로서의 이소토피의 중심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심성, 즉 헤테로토피아의 사례로 21세기 초엽 카이로, 마드리드, 아테네, 바르셀로나, 뉴욕 등에서 나타난 광장 점거의 새로운 정치 형태들을 제시하고 있다(Harvey, 2012: xvii).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에 대한 하비의 비판을 바탕으로 마가렛 콘(Margaret Kohn)은 100여 년 전 유럽에서 활발히 전개된 협동조합, 민중회관, 노동회의소 등의 사례를 통해서 '저항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제시한다(Kohn, 2003: 91). 콘의 저항 헤테로토피아는 "현재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위계성을 전복하고 경쟁하는 진짜 대항 장소를 구성하며", 이 대항 장소의 기능은 "도피, 봉쇄, 부정이 아니라 사회변혁이기 때문에, 정상화에 대항하는 투쟁의 중요한 장소를 형성한다."

앞서 언급한, 1960년 4월 혁명 당시 서울의 거리, 1980년 광주 금남로, 광화문 광장과 지금은 강제로 철거된 세월호 천막은 '독점화된 정치권력을 해체하고 새로운 권리 담론들을 잉태하고 연결하는 저항, 그리고 대항 헤테로토피아'라고 할 수 있다. 존 레스타키스가 주목한 인도 첸나이시와 '포람보케' 공유지 사례, '로자바' 자치위원회의 민주연합주의가 구현되는 시리아 북부 쿠르드 자치구, 시민권력의 예시적 정치를 보여주는 인도 깨탈라시는 저항과 대항을 넘어서 대안 헤테로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다(레스타키스, 2022). 이 모든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이것들이 처음부터 목적의식적으로 기성 도시 구성체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기획되었다기보다는, 기성 도시 구성체의 한계가 드러나는 탈구적 계기에서 이 탈구적 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치사회적 가치가 결합되고, 어떤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이 구축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정치적 실천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헤테로토피아는 별도의 독

립된 공간이라기보다, 기성 도시 구성체 또는 이소토피의 균열 지점 혹은 은폐된 한계 지점에서 형성된 해방적 주체의 활동 영역이라는 것이다. 경의선 공유지 운동, 서울혁신파크 실험, 공동체 은행 빈고의 대안 금융과 대안 주거 공동체 운동, 대학 밖 연구자들의 대안 연구 활동의 영토로서의 알 커먼즈 합정, 마포-신촌 학술단체 네트워크 활동 또한 대안 헤테로토피아의 프로토타입이라 할 수 있다.

5. 도시 커먼즈의 개입

1) 커먼즈, 물

이 절에서는 커먼즈를 간략하지만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도시 구성체의 정동적 잔여가 부정성의 차원에서 기성 도시 구성체의 헤게모니 주변을 떠돌기만 하거나, 기존 도시 구성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물질적이고 실천적인 힘을 가지고서 다양체로서의 아상블라주가 가진 리즘적이고 탈영토화-재영토화의 흐름을 기존 문제와 고통의 재생산이 아닌 해결로 향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커먼즈에 대한 가장 간략한 정의는 아마도 '하나의 의사결정이 배타적인 자격을 행사할 수 없는 자원과 활동'이라 할 수 있다(Wijkman, 1982: 512). 커먼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어떤 유무형의 자원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때, 이에 대한 권한을 다른 자들보다 우월한 자가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커먼즈는 배타성과 이에 따른 배재성보다는 개방성과 접근 가능성이 중심이 되는 공동 자원 관리 및 사용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자원이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면서도, 무한하지 않고 오히려 희소성이 높은 것이라면 그만큼 더 커먼즈로서의 자원일 수밖에 없고, 커먼즈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좋은 사례는 ‘물’이다.

물은 사람은 물론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필수 조건이다. 물, 특히 깨끗한 물은 누구나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을 누군가 독점하고 소유 권한을 주장하면서 물의 공급과 사용을 사적인 이유로 통제한다면, 물에 적절히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불편할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받으며, 존엄한 삶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물이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상품화나 민영화가 될 경우, 커다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2016년 미국 오리건주 후드 리버(Hood River) 카운티에서 벌어진 다국적 기업 네슬레 워터스(Nestle Waters)의 생수 생산 사업에 맞선 지역 주민의 투쟁과 법 개정 사례가 있다(Shareable, 2018). 볼리비아 코차밤바(Cochabamba) 사례도 잘 알려졌다. 후자의 경우, 코차밤바의 상수도 공급업체인 SEMAPA가 다국적 기업 Bechtel이 주도하는 국제 컨소시엄 Awas del Tunari에 임대되는 민영화 결과로 코차밤바의 수도 및 관계 시스템과 서비스의 독립성·자율성이 크게 침해되고 수도 요금의 급격한 상승하자, 이에 반대하는 볼리비아 국민은 물 사유화 반대 투쟁을 벌여 민영화법 철회, ‘식수와 위생 서비스 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급기야, 볼리비아는 개헌을 통해 물 민영화와 영리 조직에 의한 물 서비스 사업을 금지했다(Roa-García, Urteaga-Crovetto & Urteaga-Crovetto, 2015). 이외에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시민주도 물 관리(Viero et al., 2003), 파리의 수자원 인프라, 공급 및 위생 시설의 재지방정부화 사례도 마찬가지다(Kishimoto et al., 2015). 이것은 사례의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물이 공공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통상적으로는 대의제적인 방식으로 관리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 사용자인 국민에 의해서 관리되고 공유되는 커먼즈 차원에서 관리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2) 양도할 수 없는 모두의 것 ‘데마니오’: 이탈리아 물 국민투표 사례

주목할 것은 2011년 이탈리아 물 국민투표 사례이다. 이탈리아에서는 2000년대 초반 ‘국공유재’에 관한 연구가 학계에서 활발히 이뤄졌으며, 그 영향으로

법무부는 기존 공공재 체제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을 목적으로 향후 위원장의 이름을 딴 ‘로도타 위원회(La Commissione Rodotà)’라 불리는 국공유재 관련 개정 법안 수립 위원회를 구성했다. 로도타 위원회는 국공유재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데마니오(demanio)’ 개념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dominium’과 고대 프랑스어 ‘demaine’의 법적인 뜻을 연구하면서, 데마니오, 즉 국공유재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 하나는 ‘양도할 수 없는’(이탈리아어 inalienabili, 영어 inalienable) 것임에 주목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2009년에 모든 공공서비스와 경제 관련 설비가 민간 시장화될 수 있도록 하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을 때, 이에 대한 시민 저항이 일어났으며, 일부 로도타 위원회 위원들은 물을 중심으로 민영화 반대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 발안을 추진했다(정영신, 2022; Eligendo, 2011).⁵⁾

2011년에 실시된 물 민영화 반대 이탈리아 국민투표는 ① 공공서비스 민영화 프로그램 중단, ② 상수도 관련 ‘투자자본의 보수’ 연 7% 이상 보장 금지를 통한 수도사업 이익 추구 동기 및 민간기업 인센티브 삭제, ③ 이탈리아 핵발전 프로그램 재개 법 폐지, ④ 베를루스코니 총리 사법적 호보 관련 법 폐지 등 총 4개 문항에 찬반 투표를 담고 있었으며, 이 중 물은 곧 공공재·커먼즈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물 국민투표’라 불리게 되었다. 투표 결과 총 2,7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했으며, 그중 약 95%가 물 민영화 반대 포함 모든 사항에 찬성표를 던졌다. 물 국민투표 경험과 함께, ‘양도할 수 없는’ 것, 즉 누구도 배타적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사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인 ‘데마니오’와 커먼즈는 이후 이탈리아 대법원의 중요한 결정들에서 인용되었으며, 이 여파로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오페라 하우스, 베니스 마리노니 극장, 카타니아 코폴라 극장 등이 폐쇄되는 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접거하고 이를 시민참여 운영 공간으로 전환하는 실험이 커먼즈 차원에서

5) 주요 사건 전개 과정은 정영신, 2022, 「이탈리아의 민법개정운동과 커먼즈 규약 그리고 커먼즈의 정치」,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6권 1호, 93~139쪽 참조.

확산되었다. 2014년 볼로냐에서는 시 정부와 시민이 함께 개인과 공동체의 목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여러 도시 인프라, 특히 공공 공간·건물, 디지털 플랫폼 등 물질적·비물질적 디지털 재화를 도시 커먼즈로 규정하고, 「도시 커먼즈의 관리와 재생을 위한 시민과 시의 협력에 관한 볼로냐 규약(Regolamento Sulla Collaborazione Tra Cittadini E Amministrazione Per La Cura E La Rigenerazione Dei Beni Comuni Urbani)」을 제정했다(정영신, 2022; Bollier, 2015; The Urban Media Lab, 2014).

이탈리아 물 국민투표에서 주목할 것은 단지 물이 공공재라는 것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가 아니라, 물을 공공재로서 제대로 관리·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관료적 권위주의 차원에서 과두제화되고 있는 대의제 정치만으로는 불충분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커먼즈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며, 이는 물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재, 그리고 도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3) 공동 자원의 확보와 커먼즈 기반의 조성

강, 바다, 숲, 호수, 공동 수로·어로, 갯벌, 마을 축제와 같은 마을 공동 자원의 경우, 전통적인 농어촌 공동체에서는 경제학자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이 제시한 커먼즈의 공동 자원을 관리하는 8가지 디자인 원칙을 중심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능하다.⁶⁾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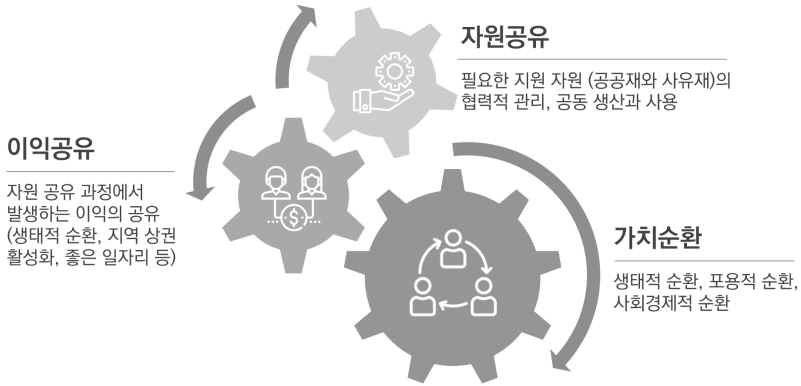
6) 오스트롬이 제시한 8가지 디자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명확한 경계(defined boundaries), ② 규칙의 부합성(congruence between appropriation and provision rules and local condition), ③ 집합적 선택장치(collective-choice arrangements), ④ 감시 활동(monitoring), ⑤ 점층적 제재(graduated sanctions), ⑥ 갈등 해결 장치(conflict-resolution mechanisms), ⑦ 규칙 제정 권리(minimal recognition of rights to organize), ⑧ 중층적 주체(Nested enterprise). Elinor Ostrom,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Political Economy of Institutions and Decisions) 참고.

오늘날 개방성, 혼종성, 유동성, 유연성, 연결성 등을 특징으로 하면서 빠르게 그 경계가 변하면서 그 규모가 팽창 또는 축소하는 도시의 경우, 오스트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이것은 오늘날 도시든 농촌이든 대부분 지역은 폐쇄된 공간에서 자립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교환, 인구 이동, 문화 교류 등을 통해 거리와 상관없이 전 지구적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커먼즈와 달리, 도시 커먼즈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그만큼 지역 내 자원 사용이 엄밀한 공동체 구성원만이 아닌 불특정 외부인에게까지 확장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개방성'과 '접근 가능성'이 전통사회에서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탈리아 물 국민투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가 점차 도시화되면서, 커먼즈는 농어업, 산림, 목초지, 야생동물, 토지권, 관개수로, 마을 조직 등 마을 중심의 자연 상태의 어떤 것이나 이에 대한 인간 행위를 넘어서, 도로, 예산, 라디오 주파수, 의료 서비스, 대기권, 지적 재산권, 유전자 정보, 인터넷, 디지털 플랫폼과 이에 기반해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물질·비물질적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P2P 생산 활동 등 훨씬 더 폭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즉, 새로운 커먼즈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Hess, 2008).

그렇다면 도시 커먼즈는 도시의 실천적 삶을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공유'라는 단어를 차용해 보자(여기서 공유는 유희 자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외피로 사용되는 공유경제의 '공유'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도시 커먼즈적 실천은 범주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자원 공유이다. 이것은 지역 또는 정체성 기반 공동체에 필요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생산하는 활동이다. 두 번째 활동은 이익 공유이다. 자원 공유 활동은 그 과정에서 유무형의 특정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생태적 가치와 환경의 복원, 지역 상권 활성화, 좋은 일자리, 질 좋은 돌봄 및 복지 서비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원 공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 또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투자 또는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특정한 커먼즈 실천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림 1〉 범주별 공유 활동



자료: 서울특별시(2020: 47).

보다 보편적인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활동은 가치 순환이다. 이 가치 순환은 자원과 이익이 보다 더 폭넓고 급진적으로 공유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커먼즈에 기반한 윤리와 생활양식을 체득하고, 나아가 불평등, 민주주의의 후퇴, 기후위기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서울특별시, 2020: 52).

이러한 커먼즈적 실천 범주가 적절하게 상호 맞물릴 때, 도시 커먼즈 기반 도시 전환은 단계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공동 자원의 확보와 커먼즈 기반의 조성’이다(서울특별시, 2020: 53). 앞에서 언급한 ‘물’ 민영화 대응 사례들처럼, 공동 자원의 확보와 커먼즈 기반의 조성이란 사영화되고 상품화된 공공재를 다시 ‘공공재의 위치’로 회복시켜서 모든 사람이 자산 규모와 소득 수준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기본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한국의 경우, 이 단계에서 주목할 지점 중 하나가 ‘국유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해방 직후 약 60%였던 국공유지가 현재 약 30%(국유지 23%, 공

<그림 2> 미국 국공유지 정보구축 구조와 목록 예시



자료: 정기황(2023).

유지 7%)로 절반이 줄어들었으며, 그동안 모든 정권은 지속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국공유지의 매각이 현재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정기황, 2023). 우리의 국공유지가 커먼즈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각 포함 국공유지 관리 상황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의 토지관리국(Public Building), 영국의 GPU(Government Property Unity), 그리고 이탈리아의 국유재 관리청(Agenzia del Demanio)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정기황, 2023; Agenzia del Demanio, <https://www.agenziademanio.it/it/>).

4) 공공재의 공동 자원화: 커먼즈로서의 도시 인프라

두 번째 단계는 공공재의 공동 자원화이다. 이것은 기성 도시 구성체를 탈구축하면서, 새롭고 구체적인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 단계는 두 축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한 축에서는 사적 상품에서 회복된 공공재가 다시 ‘국가 자산’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인 행정관료적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사용자들의 공동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는 시민 주도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서울특별시, 2020: 53). 이것은 앞의 물 사례들처럼 주민·국민 발의 및 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실천을 동반하기도 하고, 파리 15분 도시, 볼로냐와 겐트의 커먼즈 기반 도시,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협동조합 기반 도시처럼 도시 전환 계획 수립과 운영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하기도 한다. 이것은 기성 전략적 도시 모델에 기반한 도시 구성체를 탈영토화하고, 새로운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를 만들면서, 대항·대안 헤게모니적 실천으로서 새로운 도시 구성체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 중 하나는 도시의 주요 공적 인프라에 대한 커먼즈적 접근 방식이다. 대부분의 도시 인프라는 정부가 국가 발전의 거시적 비전과 목표를 전제로 탑다운 방식으로 기획한다. 문제는 이러한 도시 인프라 구축 방식은 막대한 건설·관리 비용이 들고, 시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도, 필요시 수정 또는 복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브렛 M. 프리차만(Brett M. Frischmann)의 ‘커먼즈로서의 인프라’ 모델 연구는 시사점이 높다(Frischmann, 2012). 프리차만에 따르면, 엄청난 비용과 효과를 발생시키는 인프라가 공급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축·관리될 경우, 수요자·일반 시민의 삶이 수동적으로 통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과도한 관리 비용과 갈등을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도시 인프라는 고정된 용도와 목적을 넘어 새로운 용도와 효율성 창출이 가능하도록 개방성과 차별 배제 원칙(반드시 무상이어야 함은 아님)을 추구하면서도 반대로 상업화와 사영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방식은 사용자에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이 아닌 공동 생산과 협력으로 여러 좋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며, 미래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면서도 저비용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 축에서는 지역 내 여러 공동 자원이 상호 보완적으로 순환하는 연결을 통해 개인의 새로운 일상의 동선과 커먼즈 생태계 원형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파리의 15분 도시, 볼로냐와 겐트의

커먼즈 기반 도시,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커먼즈 기반 플랫폼 경제를 중심으로 한 커먼즈의 정치가 만들어 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또한 새로운 이상블라주를 만들고, 그 영토를 확장하고, 투기적 도시화의 영토성을 억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과정은 기성 도시 구성체의 헤게모니 실천에 따른 남유와 추방의 과정에서 왜곡되고 배제된 것들이 새롭고 고유한 위치성을 갖게 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흐름이기도 하다.

5) 공동 자원의 사회적 선순환과 돌봄 체계 구축

세 번째 단계는 공동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새로운 일상의 확산과 지역과 도시의 커먼즈적 전환이다. 이것은 한 지역에서 사람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적·사회적 기반이 권리 차원에서 공유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서울특별시, 2020: 54). 예를 들어, 주거 공간은 돌봄, 의료, 교육, 노동, 생산, 놀이, 문화예술, 건강, 참여, 교통, 교류와 교환 등 다양한 자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특정한 구체적인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 자원들은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다양한 정체성과 신체적 조건에 맞게 변형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연결된 자원들이 공동 자원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출 때,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지 저렴한 주거 공간에 고립되지 않고, 지역의 공유 생태계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켜나갈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사회주택과 분산형 에너지 생산 및 공유 체계, 먹거리 공유 및 지역 자원순환 시스템, 공공임대 상가와 지역화폐, 그리고 학교와 예술 공간, 마을 놀이터 등이 도시 커먼즈 차원에서 선순환적으로 연결될 때 새로운 일상을 위한 조건이 창조될 수 있다.

물론 도시 커먼즈는 단지 공공재(public goods)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공공재를 기반으로 혹은 공공재의 영역 넘어 사람들이 수평적이고 안전한 민주적인 상호 돌봄 시스템과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적인 협력 활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는 도시 커먼즈가 제도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협력하고 공생공락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행위 기반이자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도시 커먼즈는 특히 기후위기, 불평등, 불안정 노동, 돌봄 안전망과 민주주의의 후퇴 등 복합 위기와 심층적 불안 시대에 사회적으로 더욱 분출되고 확산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가 헤게모니 실천을 통해 도시 구성체로 확정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도시 커먼즈라는 재현적 매개는 도시 구성체의 헤게모니적 특징을 억압적인 것보다는 리즘적이고, 수평적이고, 개방적이고, 탈중심적인 것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상블라주로서의 도시와 도시 구성체 사이 뒤틀림을 약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도시 커먼즈를 매개로 하는 뒤틀림 사이에서 발생하는 도시의 정동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슬픔과 분노보다는 기쁨과 환대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6. 결론

신자유주의 투기적 도시화가 재현해 가는 도시 구성체 안에서 도시 커먼즈 운동은 일정한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국유재산에 대한 공공성보다 정부의 공적 재산권을 강조하는 국유재산법, 법적 재산권과 소유권이 배타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배타적 권한'과 '양도 가능성', 즉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커먼즈가 양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자원이 사유화되고, 모든 관계가 상품화되어 가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계에서 도시 커먼즈에 기반한 세계를 잉태하고 구축한다는 것은 이 세계의 가려진 균열 지점을 발견하고, 그 지점에서 이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즉 추방해 버린 것들을 가지고서, 이 세계의 영역들을 조금씩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그 궤도에서 도시 커먼즈의 세계를 창조하는 힘들고 오랜 시간의 과업임을 의미한다. 또 다른 제약은 이 세계를 살아가는 모두가 가진 '불안'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증폭된 투기적 도시화와, 이에 따라 더 커져가는 불

안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상상과 경험의 기회를 갖고,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공감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삶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쟁과 노동 강도 아래에서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갖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존 레스타키스(John Restakis)가 제시하듯, 커먼즈 운동은 불완전한 인간이 스스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와 사회연대경제에 기반한 자율적인 자치 활동이다(레스타키스, 2022). 즉, 불안은 도시 커먼즈 운동이 출현하는 제약임과 동시에, 그 출현을 촉발하는 커다란 기폭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 커먼즈 운동이 투기적 도시화가 헤게모니적으로 영토화하는 도시 구성체를 넘어서려는 해방적 주체의 대항·대안 헤테로토피아 확장 운동과 결합한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도시 커먼즈 운동과 해방적 주체의 결합을 통해, 투기적 도시화의 도시 구성체를 공고히 하는 남유와 추방에 의해 폐쇄된 영역과 쫓겨난 사람들이 스스로 도시 커먼즈 운동·담론과의 접합을 통해 새로운 권리 담론을 확장하고, 투기적 도시화를 넘어 새로운 권리 담론을 확장하고 대안 세계를 위한 자원과 규범을 생산해 나갈 수 있다(이승원, 2019: 159~162). 도시 커먼즈 운동은 기본적으로 부와 가치를 민주적으로 공동 생산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사적 소유권의 배타적 권리와 도시와 부와 가치를 독점하려는 투기적 도시화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방향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사영화된 도시 영역을 다시 공동 자원화하는 과정이며, 투기적 도시화에 의해 남유된 권리 담론을 탈구축하고 재구성하여, 도시 거주민의 주권을 되찾는 실천이기도 하다.

둘째, 이 둘의 결합은 수평적이고 복합적인 협력을 촉발하고, 이 과정에서 기성 투기적 도시화의 도시 구성체에 대한 대항과 대안의 헤테로토피아를 창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권리 담론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민주주의의 공간을 급진적으로 확장하고,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의 영토성을 새롭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이승원, 2019: 162~166).

이것은 기성 도시 구성체를 전환·전복하고 특권적 주체가 아닌 모두, 즉 인민 주권을 재할성화하는 새로운 해방적 도시 구성체를 구성할 수 있는 직접·급진 민주주의의 지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도시 커먼즈와 급진 민주주의가 접합하면서 급진 민주주의의 실천이 도시 커먼즈의 물질성을 통해 대안적 형태의 구체적인 사회연대경제에 기반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스 최초의 노동자 회생 자주 관리 공장인 비오미(Vio.Me)와 그리스 최대 사회연대 의료 기관인 MCCH(Metropolitan Community Clinic at Helliniko)가 공공서비스 시스템과 경제 기반이 취약해진 COVID-19 팬데믹 시기, 공동 생산과 관리를 위한 민주적 협동 규범을 자발적으로 만들고 운영한 사례는 급진 민주주의의 도시 커먼즈의 결합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Howarth & Roussos, 2022).

물론 도시 커먼즈가 해방적 주체와 결합하여 새로운 대항·대안 헤테로토피아를 만들어 가면서 투기적 도시화의 도시 구성체를 해체하는 과정은 언제나, 이것을 방해하고 억제하는,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수동 혁명과 변형주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기성 도시 구성체의 끊임없는 남유와 추방의 시도에 부딪히고 이와 경합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합이 해방적 계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기적 도시화의 남유와 추방을 전복할 도시 커먼즈와 급진 민주주의의 조합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상상을 생산하고, 실험을 통해 경험해 가야 하며, 투기적 도시화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 정념으로서 불안이라는 정동을 대체하고 새로운 해방적 주체의 탄생을 위한 신체의 변용을 촉진하는 기쁨과 희망의 정동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원고접수일: 2023.12.02.

1차심사완료일: 2023.12.16.

1차수정완료일: 2023.12.27.

계재확정일: 2023.12.27.

최종원고접수일: 2023.12.27.

Abstract

**Urban Formation and Urban Commons:
Conceptual Reflections for an Alternative Urban Transformation**

Seungwon Lee

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develop the concept of ‘urban formation’ as part of a search for possibilities and alternative directions of urban transformat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problems and crises caused by speculative urbanization not through its internal adjustment, but through an alternative transformation of the urban projec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 conceptual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ty as assemblage’ and ‘the urban formation’ and explains how this conceptualization contributes to urban transformation as a field of practice. Next, the paper briefly conceptualizes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speculative urbanization’ in the hegemonic territorialization of the city as an assemblage today, and how catachresis and ban, which constitutively occur when certain urban formations are imperfectly represented, emerge in neoliberal urban projects that attribute ‘speculative urbanization’. Finally, the article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constructing and representing the banned as the subject of subversion and emancipation against speculative urbanization articulating with the ‘urban commons’ movements.

Keywords: city as assemblage, urban formation, urban commons, catachresis, ban, speculative urbanization

참고문헌

- 공동체 은행 빙고. <https://bingobank.org/bingo>
- 김속진. 2016. 「아상블라주의 개념과 지리학적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제51권 3호, 311~326쪽.
- _____. 2020. 「아상블라주 관점으로 본 젠트리피케이션과 대응, 그리고 도시정책의 모빌리티: 성수동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3호 3호, 1~19쪽. DOI: 10.21189/JKUGS.23.3.1
- 김정희원. 2023. “The rise of a neoliberal punitive state; a case of South Korea, 2008-present”. 현대정치철학연구회 공방 초대석 발표자료. 2023.10.18.
- 데란다, 마누엘. 2019. 『새로운 사회철학: 배치 이론과 사회적 복잡성』. 김영범 옮김. 그린비.
- 라클라우, 에르네스토·상탈 무페. 2012.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급진 민주주의의 정치를 향하여』. 이승원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 레스타키스, 존. 2022. 『시민권력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커먼즈, 사회적경제, 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와 정치의 전환』. 번역협동조합 옮김. 착한 책가게.
- 메리필드, 앤디. 2015. 『마주침의 정치』. 김병화 옮김. 이후.
- 문규민. 2022. 『신유물론 입문: 새로운 물질성과 횡단성』. 두번재테제.
- 박배균 외. 2017.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 하기』. 동녘.
- 박인권. 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제25권 1호, 95~139쪽.
- 백일순. 2023. 「주거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일산과 광교 신도시 거주민들의 비교」. 2023 한국 공간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백일순·김주락·이승원. 2023. 「도시 구성체로서의 학군: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사례로」. 《공간과 사회》, 제33권 2호, 132~183쪽. DOI: 10.19097/kaser.2023.33.2.132
- 블리어, 데이비드.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새로운 공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유인을 위한 안내서』. 배수현 옮김. 서울: 갈무리.
- 빌라니, 아르노·로베르 썬소. 2012. 『들뢰즈 개념어 사전: 들뢰즈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87』. 신지영 옮김. 갈무리.
- 서울특별시. 2020.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 세넷, 리처드. 2020. 『짓기와 거주하기: 도시를 위한 윤리』. 김병화 옮김. 김영사.
- 신진숙. 2019. 「조선산업을 통해 본 산업도시의 정동 정치: 정동적 도시론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4권 2호, 177~198쪽.
- _____. 2021. 「도시 글쓰기를 통해 본 강남의 정동적 경관과 아상블라주」. 《문화역사지리》, 제33권 2호, 69~88쪽.
- 심한별. 2023. 「신도시 거주자들의 주거 이동과 주거 경험: 한국의 지배적 도시주의와 그 균열에 대

- 하여]. 2023 한국공간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아감벤, 조르조. 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박진우 옮김. 서울: 새물결.
- 오민용. 2022. 「읽기와 법해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2호, 71~104쪽. DOI: 10.35505/slj.2022.06.11.2.71
- 《웹진 공유도시》. 2021. 「투기적 도시화와 그 대안들」, 4호.
- 윤일환. 2007. 「데리다의 은유론: 명사중심주의와 태양중심주의의 해체」. 《비평과 이론》, 제12권 2호, 57~83쪽.
- 이승원. 2008. 「민주주의와 헤게모니: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비교민주주의연구》, 제4권 1호, 67~108쪽.
- _____. 2009. 「하위주체와 4월 혁명: '하위주체'의 참여형태를 통해 본 민주화에 대한 반성」. 《지역과 전망》, 통권20호, 182~216쪽.
- _____. 2019.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공간과 사회》, 제29권 2호, 134~174쪽. DOI: <https://dx-doi-org.libproxy.snu.ac.kr/10.19097/kaser.2019.29.2.134>
- 정기황. 2023. 「공평하게 소유(해야만)하는 땅, 공유지(公有地)」. 《웹진 공유도시》, 16호(www.commonscity.com)
- 정영신. 2022. 「이탈리아의 민법개정운동과 커먼즈 규약 그리고 커먼즈의 정치」.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6권 1호, 93~139쪽.
- 정창조. 2023. 「비-명명의 역습: 장애인들의 비상행동과 '장소성'의 재-구축」. 《문화과학》, 115호, 68~90쪽.
- 조광제. 2023. 『들뢰즈와 가타리의 『천 개의 고원』, 『서론: 리즘 읽기』. 세창출판사.
- 최정은. 1999.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 파농, 프란츠. 2010.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남경태 옮김. 그린비.
- 프레이저, 낸시. 2023.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장석준 옮김. 서해문집.
- 황진태. 2016. 「발전주의 도시에서 도시 공유재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9권 2호, 1~16쪽. DOI: 10.21189/JKUGS.19.2.1

Agenzia del Demanio, Italy. <https://www.agenziademanio.it/it/>

Anderson, B. & Holden, A. 2008. "Affective urbanism and the event of hope." *Space and Culture*, Vol.11, No.2, pp.142~159. DOI: <https://doi.org/10.1177/1206331208315934>

Anttiroiko, A. V., and de Jong, M. 2020. *The inclusive city: The theory and practice of creating shared urban prosperity*. Springer Nature

Bollier, David. 2015. "Bologna, a Laboratory for Urban Commoning." <https://www.bollier.org/blog/bologna-laboratory-urban-commoning>, 2015.04.06.

- Borch, C. and Kornberger, M.(eds.). 2015. *Urban Commons: Rethinking the City*. New York: Routledge.
- Brenner, Neil & Schmid, Christian. 2011. "Planetary Urbanization." in Matthew Gandy(ed.). *Global Constellations*. Berlin: Jovis
- Camponeschi, C. 2013. "Enabling City 2: Enhancing Creative Community Resilience." [www document] URL <https://www.enablingcity.com/read> (accessed on September 15, 2023).
- Delanda, Manuel. 2016. *Assemblage Theory*. Edinburgh University Press.
-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Minneapolis: UMP.
- Deleuze, G. & Parnet, C. 2007[1977]. *Dialogues II*. New York: CUP.
- Derrida, Jacques. "White mythology: metaphor in the text of philosophy." *Margins of philosophy*. Bass, Alan. trans. Chicago: UCP
- Dovey, K. 2010. *Becoming Places: Urbanism/Architecture/Identity/Power*. New York: Routledge.
- Eligendo. 2011. "Referendum 12/06/2011 Area ITALIA." <https://elezioni.interno.gov.it>
- Espósito, G., Clement, J., Mora, L., and Crutzen, N. 2021. "One size does not fit all: Framing smart city policy narratives within regional socio-economic contexts in Brussels and Wallonia." *Cities*, Vol.118. pp.1~14. DOI: <https://doi.org/10.1016/j.cities.2021.103329>
- Fontanier, Pierre. 1968. *Les figures du discours*. Paris: Flammarion
- Foster, S., Iaione, C. 2019. "Ostrom in the city: Design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the Urban commons" in Hudson, B., Rosenbloom, J., and Cole, D.(eds.). *Handbook of the Study of the Commons*. Routledge, NY.
- Foucault, Michel. 1997. "Of Other Spaces: Utopias and Heterotopias." in Neil Leach(ed.). *Rethinking Architecture*. London: Routledge.
- Frischmann, Brett M. 2012. *Infrastructure: the social value of shared resources*. Oxford University Press
- Gramsci, A.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Hoare, Q. and Smith, N.(trans.). International Publishers.
- Harvey, D.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London: Verso.
- Hess, Charlotte. 2008. "Mapping the New Commons." Presented at "Governing Shared Resources: Connecting Local Experience to Global Challenges:" the 12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Commons. University of Gloucestershire. Cheltenham. England. July 14-18.

2008. <http://ssrn.com/abstract=1356835>
- Howarth, David & Roussos, Konstantinos. 2022. "Radical democracy, the commons and everyday struggles during the Greek crisis."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25, No.2, pp.311~327. DOI: <https://doi.org/10.1177/13691481211067147>
- Kip, Markus et al. 2015. "Seizing the (Every)Day: Welcome to the Urban Commons!" in Markus Kip et al.(eds.). *Urban Commons: Moving Beyond State and Market*. Berlin: Baurverlag.
- Kishimoto, Satoko, Lobina, Emanuele & Petitjean, Olivier. 2015. *Our public water future: the global experience with remunicipalisation*. Transnational Institutie.
- Kohn, Margaret. 2003. *Radical Space*. Cornell University Press.
- Laclau, E. 1990. *New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of our time*. Verso.
- _____. 2014. "The politics of rhetoric" *The rhetorical foundation of society*. Verson.
- Lefebvre, H. 1967. "Le droit à la ville." *L'Homme et la société*, Vol.6, No.1, pp.29~35.
- _____. 2003[1970]. *The Urban Revolution*. trans. Robert Bononno. Minneapolis: Minnesota Press.
- McFarlane, 2011. "The city as assemblage: dwelling and urban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29, pp.649~671. DOI: <https://doi.org/10.1068/d4710>
- Muller, Martin. 2015. "Assemblages and actor-networks: rethinking socio-material power, politics and space." *Geography compass*, Vol.9, No.1, pp.27~41. DOI: <https://doi.org/10.1111/gec3.12192>
- Nail, Thomas. 2017. "What is an Assemblage?" *Substance*, Vol.46, No.1, pp.21~37.
- O'Donnell, G. 1973.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Authoritarianism: Studies in South American Politics*. Berkel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 _____. 1978. "Reflections on the patterns of change in the bureaucratic-authoritarian state."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12, No.1, pp.3~38.
- Ostrom, Elinor.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Political Economy of Institutions and Decis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a-García, Maria Cecilia, Urteaga-Crovetto, Patricia & Bustamante-Zenteno, Rocío. 2015. "Water las in the Andes: a promising precedent for challenging neoliberalism." *Goeforum*, Vol.64. pp.270~280. DOI: <https://doi.org/10.1016/>

- j.geoforum.2013.12.002
- Shareable. 2018. "Sharing Cities: Activating Urban Commons: 198."
<https://www.storyofstuff.org>, <https://www.localwateralliance.org/>
- Shi, L. 2021. "From progressive cities to resilient cities: Lessons from history for new debates in equitabl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Urban Affairs Review*, Vol.57, No.5, pp.1442~1479. DOI: <https://doi.org/10.1177/1078087419910827>
- Stavrvides. S. 2016. *Common Space: The City as Commons*. London: Zed Books.
- The Urban Media Lab. 2014. "Bologna regulation on public collaboration for urban commons." 2014.10.31. <https://labgov.city/theurbanmedialab/bologna-regulation-on-public-collaboration/>
- Thrift, Nigel. 2004. "Intensities of feeling: Towards a spatial politics of affect."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Vol.86, No.1, pp.57~78. DOI: <https://doi.org/10.1111/j.0435-3684.2004.00154.x>
- Vale, L. J. 2014. "The politics of resilient cities: whose resilience and whose city?" *Building Research & Information*, Vol.42, No.2, pp.191~201. DOI: <https://doi.org/10.1080/09613218.2014.850602>
- Viero, Odete Maria & Cordeiro, Andre Passos. 2003. *The case for public provisioning in Porto Alegre*. Water Aid and Tear Fund.
- Wijkman, Per Magnus. "Managing the global comm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1982, Vol.36, No.3, pp.511~536. DOI: <https://doi.org/10.1017/S0020818300032628>